

# 목포세관 미식관광 거점으로 '탈바꿈'

### 복합문화공간 새로운 명칭

### '목포 미식문화갤러리-해관1897'

### 창고 2개 동 보수·정비 4월 개관

옛 목포세관 창고가 미식관광 거점으로 탈바꿈해 새출발한다.

목포시는 옛 목포세관창고 복합문화공간의 새로운 명칭으로 '목포 미식문화갤러리-해관1897-'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새롭게 탄생하는 복합문화공간의 명칭 선정에 위해 지난 2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다. 270건이 접수된 가운데 시는 중복 등 1차 선별을 마친 256건에 대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역사, 관광, 문화, 홍보 등 분야별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공간의 상징성과 의미 등에 가장 부합하는 명칭인 '목포 미식문화갤러리-해관1897-'이 최종 선정됐다. 시는 선정작을 제안한 응모자에게 시상금 10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는 '해관1897'이 지난 1897년 10월 목포 개항과 동시에 '해관'이란 명칭으로 관세 업무를 시작했던 장소의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담고 있으며, '미식문화갤러리'는 '맛의 도시' 목포를 대표할 새로운 미식관광 거점으로서의 역할과 비전을 잘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옛 목포세관창고 복합문화공간 조감도.

특히 '갤러리'는 보통 미술품을 진열·전시·판매하는 장소를 뜻하지만 '미식문화갤러리'가 답을 미술품(味道品 맛 미, 지을 술, 물건 품)으로 '목포 맛'에 대한 모든 것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공간이라는 정체성을 함축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역사적 가치가 큰 옛 목포세관 본관 터와 창고를 의미있게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창고 2개 동을 보수·정비해 목포의 맛과 멋(역사, 관광, 문화) 등 특색있는 콘텐츠를 더한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오고 있다.

큰 창고는 '맛'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스몰푸드존과 푸드랩 등의 미식문화공간으로, 작

은 창고는 목포 개항 및 세관 역사를 담은 전시관을 비롯해 관광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스마트 관광플랫폼으로 각각 조성 중이다.

아외 공간은 푸드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위한 공간과 시민 쉼터로, 세관 본관 터는 노출 전시를 통한 역사 교육의 장으로 각각 활용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미식관광의 거점 공간이자 관광거점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야심차게 선보일 복합문화공간의 명칭을 선정한 만큼 앞으로는 대대적인 홍보와 4월 개관 준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 완도군, 시가지 정비 위해 봄꽃 8만 그루 분양

### 국도변 화단 조성 읍·면에 공급

완도군 농업기술센터는 자체 생산시설에서 정성껏 가꾼 리빙스턴데이지, 금어초 등 총 8종, 8만본의 봄꽃을 분양한다고 16일 밝혔다.

새로운 품종으로 프리플러, 라년클러스, 버들마편초를 시험분양한다. 봄꽃은 국도변 가로화단 조성을 위해 군정 환경산림과와 각 읍·면에 공급한다.

농업기술센터는 봄꽃 분양을 시작으로 여름꽃 6만본, 가을꽃 3만본 등 총 17만본을 생산해 공급할 계획이다.

이복선 완도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이 봄꽃으로 단장한 아름다운 경관을 보며 잠시나마 힐링할 수 있길 바란다"며 "화사하고 쾌적한 완도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취재본부장 ejhung@



완도군 농업기술센터 시험분양소에서 리빙스턴데이지와 금어초 등이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가 직원들이 모은 '사랑의 헌혈증서' 300매를 최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광주센터에 기증했다.

# 한빛원전, 직원들 모은 헌혈증 300매 기증

### 백혈병어린이재단 광주센터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가 최근 직원들이 기부한 헌혈증 300매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광주센터에 기증했다.

기증한 헌혈증은 재단을 통해 소아암과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투병 중인 환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빛원전은 지난해에도 지역 환우들을 위해 헌혈증 200매를 기증했다.

한빛본부 임직원들은 따뜻한 지역 공동체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영광=이종운 기자 jylee@kwangju.co.kr

# 진도군, 군내면 신기마을 생활 인프라 확충

### 2025년까지 24억원 투입

진도군이 군내면 신기마을 생활 여건 확충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친다.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된 신기마을에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2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마을안길 정비, 해안로 방재시설 설치,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주민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군은 설명했다.

신기마을은 '2021 신기항 어촌뉴딜사업'으로 선정돼 2023년까지 3년간 87억원을 들여 어항시설 확충, 해안 돌레길 조성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소외되고 낙후된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 영암군·영암경찰

### 무등록 이륜차 합동 단속

영암군과 영암경찰서는 삼호읍 대불산 단에서 무등록 이륜자동차·무면허 운전 등에 대한 합동 단속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 활동은 이륜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의 이륜차 운행 증가로 주민 치안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군과 경찰은 퇴근 시간대인 오후 5-7시 곳곳에 배치돼 단속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으로 현장에서 3명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를 고지하고 무등록 이륜차 등록 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무등록 이륜차를 소유한 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 사무소를 방문, 등록하면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무등록 이륜차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이륜차 등록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국어 접단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라며 "대불산 단 기업체에 이륜차 사용 등록을 홍보하는 한편 이륜차 대신 자전거 사용을 유도하도록 해 장기적으로는 무등록 이륜차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

# 해남군, 필리핀 세부 코르도바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양해각서



### 상반기 34농가 134명 단기고용

고구마 정식과 마늘·양파 수확 등 농번기를 앞두고 해남군의 농촌인력 부족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해남군은 지난 15일 군청상황실에서 필리핀 세부 코르도바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비대면 화상시스템을 통해 진행된 이날 체결식에는 명현관 해남군수와 메리 테리스 시토이 조 필리핀 코르도바 시장이 참석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인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5개월) 외국인을 합법

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다.

해남군은 상반기 수요조사 결과 관내 34농가에 13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달 3일 법무부에 도입의향서를 제출했으며,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신청 인원 전부를 확정받았다.

이후 행정절차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수요조사 농가와 매칭하고 외국인 이탈 방지를 위해 농촌인력센터와 연계해 외국인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치솟는 인건비와 인력난에 이종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